

# 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6.10.6, 한국수소연합 국제협력실 -

◇ 매일 국내·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 관련 주요 이슈를 선별·요약하여 배포함

## □ 국내

- 청정수소 산업화 전환 해법 한자리에...전주기 기술·정책 논의 ('26.10.2, 가스신문)
  - '2026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심포지엄'에서 청정수소 정책·시장부터 생산·전력계통·암모니아까지 전주기 기술·정책 동향을 공유함
  - 현대건설·테크로스 등은 대규모 수전해 플랜트 및 AWE 기술의 경제성·효율성 제고와 글로벌 수전해 시장 대응 방향을 제시함
  - 동서발전·엔포러스 등은 P2G·SOEC 기술을 통한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및 수전해 효율 향상 방안을 발표하고, 정책·시장과 기술개발 간 연계 필요성을 강조함
- 충북도·청주시, 2029년까지 청주 수소도시 조성 ('26.10.2, 연합뉴스)
  - 충북도와 청주시는 국비·지방비·현대차그룹 투자 등 총 400억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청주시 전역을 수소도시로 조성할 계획임
  - 수소 생산·출하시설 및 충전소 확충, 연료전지 설치, 수소 청소차·버스 보급 등 수소 생산·활용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함
  - 통합안전 운영센터와 안전관리협의회·기술자문단 등을 운영해 수소도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함
- 울진군, 원전·수소·재생에너지 발전 전략 모색 ('26.10.2, 프레시안)
  - 울진군은 '2026 미래에너지포럼'을 개최해 원자력·수소·재생에너지 등 지역 에너지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함

- 전문가 발표를 통해 올진 원자력수소 산업 발전전략, 혁신형 SMR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주민상생 방안 등을 모색함
- 원자력·수소·신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지역 에너지 허브 구축 및 지역상생 방안을 논의함
- 남해군, 공무원 경유차 줄인다…수소·전기차 단계적 전환  
(’26.10.1, 뉴스스)
  - 남해군은 내년 노후 공무원 차량 6대를 수소차 4대·전기차 2대로 교체하는 등 친환경차 전환을 추진함
  - 차량 구입비·보조금 등 총 4억9,300만원을 투입하고, 향후 교체 시기가 도래하는 노후 경유차도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임
  - 남해읍 수소충전소 등 기존 충전 인프라를 활용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급 및 탄소중립 실천을 확대함
- KOPIA, 탄소중립 플랜트 핵심 4개 과정 개설  
(’26.10.2, 투데이에너지)
  - 한국플랜트산업협회는 탄소배출권·SMR·CCS·수소·암모니아 저장 등 탄소중립 핵심 분야 4개 교육과정을 운영함
  - 수소·암모니아 과정에서는 액화수소·암모니아 저장 시스템 설계와 국내외 안전·설계 기준 등을 교육함
  - 글로벌 CCS 발주 동향, 수전해·수소 인프라 등 탄소중립 플랜트 기술·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추진함

## □ 해외

### ○ [스페인] 스페인, 234km 수소 파이프라인망 인허가 신속 추진 ('26.10.1, Hydrogen Insight)

- 스페인 정부는 대규모 그린수소 프로젝트의 조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총 234km 규모 수소 파이프라인 4개 구간의 인허가를 신속 추진함
- 4개 구간의 총 투자비는 3억8,880만 유로(약 6,700억 원)이며, 가스망 운영사 Enagás가 개발을 추진함
- 대상 구간은 Catalina 500MW 프로젝트 2개, Moeve 300MW Onuba 프로젝트, Repsol 100MW 프로젝트와 연계됨
- 3개 수소 프로젝트의 총 수전해 설비 규모는 900MW, 정부 지원금은 7억875만유로(약 1조2,300억원)에 달함
- 정부는 공식 긴급 행정절차를 적용해 대부분의 인허가 법정 처리기한을 기존의 절반으로 단축하되,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공청회 절차는 유지함
- 인허가 완료 후 각 파이프라인 구간의 건설에는 약 8개월~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- 해당 파이프라인은 향후 총 2,600km 규모 스페인 수소망의 일부로 편입돼 재생수소를 H2Med 수소회랑으로 운송하는 데 활용될 예정임
- 초기에는 국가 가스망 요금으로 비용을 충당하지 않고 수소 생산·수요기업과 Enagás가 직접 이용료를 협의하며, EU 수소·탈탄소 가스시장 규정의 국내법 반영 이후 장기적인 비용·접속체계를 마련할 예정임

○ [오스트리아] 오스트리아, 유럽수소은행 경매 연계 수소사업에 2억유로 지원 ('26.10.2, Hydrogen Insight)

- 오스트리아 정부는 12월 개시 예정인 유럽수소은행(EHB) 경매에 참여하는 국내 수소사업에 최대 2억유로(약 3,500억원) 지원 예정임
- 지원금은 별도 국내 입찰 없이 EHB 경매 결과를 활용하는 경매연계지원(AaaS) 방식으로 배정할 계획임
- EHB 본경매에서 선정되지 않았으나 차순위에 해당하는 오스트리아 사업을 대상으로 국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임
- 오스트리아는 올해 7월 중순부터 8월 25일까지 국내 수소사업의 지원 수요를 조사한 후 지원 규모를 결정함
- '26년 EHB 경매에는 총 5억유로(약 8,650억원)가 배정되며, 재생수소(RFNBO)에 3억5,000만유로(약 6,055억원), RFNBO 또는 수전해 기반 저탄소수소에 1억5,000만유로(약 2,595억원)가 배정됨
- 오스트리아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수전해 설비 1GW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이번 AaaS 지원은 두 번째 국내 수소생산 지원 사례임
- 오스트리아는 '24년 EHB 경매에서도 최대 4억 유로(약, 6,920억원)를 지원해 총 171MW 규모 4개 사업에 약 2억7,500만(약 4,758억원) 유로를 배정한 바 있음
- EHB의 AaaS 방식은 독일·스페인 등도 활용했으며, 독일은 '25년 경매에서 덴마크 수소사업에 최대 13억유로(약 2조2,490억원), 스페인은 4개 사업에 2억7,420만유로(약 4,743억원)를 지원함